

#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평가 리포트

## 기사 정보

기사 제목: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, '계엄 정국'에 일괄 석방 우려

언론사: 한국일보

내용: 외국인들을 임시로 머물게 하는 '외국인보호소'에 관한 법이 곧 효력을 잃게 될 상황이에요.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, 다른 문제로 다투느라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요. 이 기사는 만약 법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으면, 보호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날 수도 있고 그중에는 위험한 범죄자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.

## 뉴스 비판적으로 읽기

뉴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만, 때로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.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. 그래서 뉴스를 읽을 때는 '이 기사가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할까?' 질문하며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.

## 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

### 문제점 1: 제목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! (자극적인 제목의 함정)

기사에서 "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, '계엄 정국'에 일괄 석방 우려"라고 썼어요.

무엇이 문제인가요?: '살인 전과자', '일괄 석방' 같은 아주 무서운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어요. 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면,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나와요. 하지만 제목만 보면 마치 보호소가 위험한 범죄자들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. 이런 걸 '클릭베이트(Clickbait)' 또는 '낚시성 제목'이라고도 해요.

왜 문제가 되나요?: 이런 제목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주고, 외국인 전체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어요.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,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죠.

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: 뉴스를 볼 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화나게 만드는 단어를 쓰는지 살펴보세요. '충격', '경악', '알고보니...' 같은 단어가 있거나, 기사 내용 중 가장 극단적인 부분만 쏙 빼서 제목으로 만든 경우라면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.

### 문제점 2: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졌어요! (전체 그림 보여주기)

기사에서 "현재 전국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,600~1,800명이다"라고 알려줬지만,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를 빼먹었어요.

무엇이 문제인가요?: 기사는 보호소에 '살인 전과자'가 있다고 말하지만, 지금 있는 1,800명 중에 그런 강력 범죄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. 딱 한두 명의 무서운 사례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.

왜 문제가 되나요?: 만약 1,800명 중에 위험한 사람이 10명이라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겠죠? 전체적인 비율을 알려주지 않고 가장 나쁜 사례만 보여주면, 우리는 그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. 이것은 사물의 한 쪽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.

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: 뉴스가 어떤 주장을 할 때,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"많은 사람들이~"라고 말한다면 "정확히 몇 명이지?"라고 질문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.



## 비판적으로 뉴스 읽는 방법 체크리스트

- ☐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은가?
- ☐ 기사가 제시하는 문제의 전체적인 크기(비율, 통계)를 알 수 있는가?
- ☐ 소수의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?
- ☐ 문제의 한쪽 면만 아니라 다른 쪽 면(반대 의견, 다른 상황)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?
- ☐ 이 기사를 읽고 나니 특정 집단에 대해 나쁜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는가?

## 실습 활동 제안

**제목 바꿔보기:** 이 기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목을 조별로 만들어보고,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발표해 봅시다.

**질문 만들기:** 기사를 쓴 기자에게 궁금한 점을 3가지 이상 질문으로 만들어봅시다. (예: "현재 수용된 1,800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는 정확히 몇 명인가요?")

**균형 잡힌 기사 상상하기:** 만약 내가 기자라면, 이 기사에 어떤 정보를 더 추가해서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.

## 결론

뉴스를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, 즉 '미디어 리터러시'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이에요. 뉴스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믿기보다,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빠진 정보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똑똑한 뉴스 소비자가 되어봅시다!